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냄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비민주성·비공개성 극복 백만학우 의견 수렴 계기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제3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열린다. 대의원대회에서는 1년 한총련이 나아갈 방향을 총노선으로 채택하고 한총련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대협 6년 한총련 3년만에 처음으로 의장선출이 경선으로 치뤄진다.

사상 최초의 한총련 의장 경선/ 말만으로도 대학사회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4년째 학생운동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한총련 의장 경선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92년 한양대에서, 93년 고려대에서, 그리고 94년 당시 한총련 의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영채, 정외91)과 함께 참가했던 부산대 한총련 출범식에서 나는 두가지에 몹시 놀랐다. 하나는 한총련이라는 조직의 어마어마함이요 다른 하나는 한총련의 8년 동안 변치않는 조직적·사상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한총련 내부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개혁의 목소리는 한총련에 대당하는 또 하나의 조직적 흐름을 탄생시켰다.

'한총련 개혁모임-진보를 향한 연대' 이는 한총련의 일관된 사상인 김일성주의에 맞서는 맑스주의 총학생회와 단대 학생회의 연합이다. 바로 이번에 의장 후보로 나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진보를 향한 연대' 대표이다. 즉, 올해의 한총련 의장 경선은 기존의 한총련과 진보를 향한 연대와의 한국학생운동의 진로를 놓고 벌이는 한판 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93, 94년에 한총련 의장 경선의 기회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추천서 부족으로 맑스주의 진영에서는 후보를 낼 수 없었다. 자신과 사상이 같지 않으면 추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한총련 의장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서 복수추천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총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고 싶은 대의원들이 후보 복수추천을 해주어 이번 경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의장 투표권을 각학교 총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 한총련이 백만학우의 이해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점이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국회의원이 대통령까지 선출하지는 않는다. 웬만한 나라들은 모두 다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가상 민주적이라 불리는 대학사회의 조직이 아직도 상층 몇명에 의해 의장이 옹립되고 사업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이다. 이번 한총련 의장 경선은 당장 직선제는 아니더라도 백만학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데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한총련 계열대학 학생회장들이 복수추천이 허용된다 해서 김성훈후보를 추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한총련이 걸하고 있는 위치와 한국 현실에 맞는 올바른 변혁운동을 취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한국학생운동이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가 WTO체제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피해갈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천박한 기술수준과 작업환경에서 무한경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기에, 94년에는 어용노총을 내세워 노동자의 의지를 짓밟고 최악의 임금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며칠전 작년과 똑같은 임금가이드 라인이 떳떳 교수들에 의해 발표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있어 왔지만 변형적 민주노총 건설을 사이에 두고 총노동과 총자본이 전면 대립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철거민과 빈민들에게 자행되는 김영삼정권의 살인적 행각에 자본가정권과 민중들과의 일대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총련 의장 경선이 놓여 있다. 김성훈후보가 출마한 것은 그동안 한국학생운동이 민족과 통일문제에만 집착하고 노동자 계급과 함께 투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주의 사회 경면에 맞서 노동자 계급과 소외된 민중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결의인 것이다.

한국 변혁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올해 한총련 의장 선거를 담담하게 바라보겠다.

정 희 영
〈정외 4〉

기금사업 수익금 환원차원 수첩을 구입하는 해프닝

제27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학생복지기금사업 수익금의 환원차원에서 95년도 학생수첩을 제작하여 각 단대 학생회로 보냈다. 그리고 각 단대에서는 학복위에서 받은 수첩을 각 과로 보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몇 몇 과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수첩을 적게는 1백원에서 많게는 1천원까지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수첩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인데 몇 몇 과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돈을 받고 수첩을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

몇 몇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 각급 학생회 회비가 모자라 학복위에서 발행하는 수첩의 판매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재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생수첩이 대년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재학생과 신입생들은 학생수첩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것인줄 잘못 인식하게 되었고, 학생수첩을 미처 받지 못한 학생들은 구내 문구점에서 학생수첩을 구입 하려고 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접하는 재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학복위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학생수첩은 분명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고, 만약 또다른 과에서 이러한 판매 행위가 있다면 살필요없이 학복위로 오기 바란다. 아울러, 아직까지 학생수첩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학복위로 와서 수첩을 직접 받아 가길 바란다.

박 준 수
〈수원 학복위장〉

총학의 무책임함에 아쉬워 선배들의 투쟁성과 지켜내야

폐강이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주관학과인 정외과와 총학생회 사이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청년문화론'이 정외과 학과장님이 추천한 강사로 진행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 제기할 것이 있어 펜을 든다.

총학생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이성옥 강사님에 의한 '청년문화론' 강좌의 진행을 시간이 흐르면서 도저히 주관학과인 정외과와 타협안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자 정외과 학과장님이 제시한 방안-정외과 학과장이 추천한 강사에게 수업을 받는-을 수용해 그것을 최종적인 안으로 내놓았다. 총학생회에 의해 개설된 과목이 이유야 어찌 되었든 폐강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수강신청을 한 학우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학우들의 대표체로서의 총학생회의 부담감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격앙된 목소리로 '청년문화론'의 강의와 강사를 꼭 지켜내겠다고 했던 총학생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은 시간적인 촉박감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한다는 기본취지에 합당한가를 묻고 싶다.

학우들을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처음 수강신청 했을 때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닐까. 청년문화론을 수강신청한 학우들의 그 강의를 듣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과목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대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강사의 성향이었을 것이다. 강의내용에 어울리는 강사가 강의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89년도의 일을 되돌아보게 한다. 민족통일론이라는 학우들의 투쟁에 의해 개설된 과목을 국민윤리 강사에게 듣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총학생회가 기본적으로 일관된 입장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좌초해 버렸다는 인상을 받는다.

헌법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학생들에 의한 강사추천권을 명시한 합의문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90년도 당시 총학생회장과 공영일부총장(현 총장)과의 합의문서는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하단 말인가? 지금껏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며 90년도 합의문서를 들먹이고, 강사가 부자격자라는 이유로 발령을 내리지 않은 정외과의 태도에 대해선 학우들의 교육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하면서 떠들어 대던 총학생회가 이제와서 현실적으로 타협안이 도출되기 힘들자 정외과의 논리에 수긍하고 만 것은 과연 학우들을 책임지는 행동인가?

지난 수년간 아니 그 이상 선배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학원 자주화의 오늘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목도하는 건 본인의 지나친 자가방착만은 아닐 것이다.

박 용 환
〈수학 4〉

학내 사고 위험지역 산재 신호등·교통안전요원 필요

수원캠퍼스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대표적인 곳이 산업대 뒤편으로 해서 자연대로 가는 길로, 학생회관 쪽으로 꺾어지는 교차로가 항상 위험하다.

자연대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학생회관 쪽에서 차가 튀어나오기 일쑤이고, 학생회관 쪽을 차를 꺾다 보면 길의 구조상 워낙 급커브라 반대쪽 차선으로 진입할 때가 많다.

또 체대 앞으로해서 산업대로 넘어가는 일명 '할딱고개'의 경사는 과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대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강사의 성향이었을 것이다. 강의내용에 어울리는 강사가 강의를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89년도의 일을 되돌아보게 한다. 민족통일론이라는 학우들의 투쟁에 의해 개설된 과목을 국민윤리 강사에게 듣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총학생회가 기본적으로 일관된 입장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좌초해 버렸다는 인상을 받는다.

헌법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학생들에 의한 강사추천권을 명시한 합의문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90년도 당시 총학생회장과 공영일부총장(현 총장)과의 합의문서는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하단 말인가? 지금껏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며 90년도 합의문서를 들먹이고, 강사가 부자격자라는 이유로 발령을 내리지 않은 정외과의 태도에 대해선 학우들의 교육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하면서 떠들어 대던 총학생회가 이제와서 현실적으로 타협안이 도출되기 힘들자 정외과의 논리에 수긍하고 만 것은 과연 학우들을 책임지는 행동인가?

지난 수년간 아니 그 이상 선배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학원 자주화의 오늘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목도하는 건 본인의 지나친 자가방착만은 아닐 것이다.

박 용 환
〈수학 4〉

컴퓨터 부족해 도서관 이용 불편 시설확충과 환경개선 절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기대하는 바가 많았지만 그중 내가 가장 신났던 것은 이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맘껏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푼 마음으로 개가 열람실을 들어섰다. 곽 들어찬 장서들, 열심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고등학교때 상상했던 대학 도서관 풍경 그대로였지만 정작 나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컴맹인 내가 컴퓨터로 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한참 헤맸고, 방법을 알고 나서도 글자 하나하나 치는데 시간이 걸렸다. 또 뒤에 누가 서 있으면 미안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어쩌사리 구한 책을 읽자니 이제는 열람실안이 주위서 오해동안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책을 대출하려고 해도 대출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많은 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사용이 최선이고 이제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야 할 시대라고는 하지만 나처럼 아직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책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두 대뿐인 컴퓨터를 여러대로 늘리고 더 자세한 안내문을 마련한다면, 책꽂이에 꽂혀 있지 않은 책을 찾으러 가는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책읽기에 출지 않은 열람실이 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조 형 우
〈영문 1〉

'승차장 질서 이대로 좋은가?'

수원캠퍼스의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해명은 매해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재학생들은 항상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등교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개편된 교과과정 편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1교시에 맞추어 등교하고 있는데다 통학버스의 정해진 배차간격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편은 더욱 가중될 뿐이고 이용학생들은 '서명운동이라도 하자'고 말하는 실정이다.

예전에 비해 통학버스의 배차 간격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시간대에 몰리는 학생 수송에는 태부족일 뿐 아니라, '새치기'하는 암체쥭'까지 교통사정에 포함시킨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선의의 학생들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점들을 시정하여 마음 편한 등교길이 되었으면 한다.

권 버 미
〈중문 4〉

朔風 教授가 巧手가 되어서야…

일년 내내 각종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다. 절도, 강도, 살인, 사기, 폭력 등등. 크고 작은 사건들은 사연도 많고 곡절도 다양하다. 그만큼 사람들의 복잡하게 얽히고 섞힌 세상살이를 말해준다. 항간의 동정을 자아내는 것에서부터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직업과 범죄와 범인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력의 수준과 범죄의 질은 비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주에 세상을 놀라게 한 殺父사건이 있었다.

범인의 학력은 박사, 직업은 대학교수였다.

'교수'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방송은 흥분했고, 신문은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 했던 것이다. 놀란 사람들은 "교수 아들이 그럴 수가…"라며 벌린 입을 다물줄 몰랐다. 아들이었다. 교수였다. 教授가 巧手였던 것이다. 어찌 이런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 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마만큼인가를 새삼스럽게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만약 범인이 교수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재래르게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적 교육적 대책을 내린 것도 이땅의 소위 전문가라는 '교수'였다. 연전의 박한상사건에서도 한자리 차지하고 한말씀 하는 자리에도 '교수'는 어김없이 있었다.

교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교수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자.

쉽게말해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교수라고 말한다. 교수는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덕망있는 지성인의 대명사로 통한다. 사회의 지도그룹이며 교수의 말한마디는 그대로 무게와 권위를 지닌다. 한마디로 모든 이들이 경외하고 어려워하는 사회의 어른이요 스승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현재형은 아닌 듯하다. 대학에서 교수는 있되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지도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 걸로 보면 교수의 권위가 사라지고 한낱 직업으로 격하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부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에서는 교수임용시 거액의 돈이 요구되기 까지 한단다. 돈으로 교수를 사고 파는 작금의 교수상은 여느 직단과 다를바 없다. 대학은 이미 사회의 직업을 갖기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했거니와 교수는 직업인 양성소의 충실한 교관일 따름이라면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가 아닌가.

교수의 사회적 직위와 직책이 어느 시기보다 분리된 느낌이다. 직위는 땅에 떨어지고 책무만이 요구되는 마당이다. 사회의 師道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사회는 '교수'에게서 박탈했던 권위와 존경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교수의 사회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더욱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혹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주장이 지나쳐 아집이 되고, 시장의 장사꾼보다 돈에 민감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교수는 없는지. 巧手만을 일삼는 '교수'는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어용교수, 무능교수에 이어 살인교수로까지 왔는데 "내 알바 아니다"(That's none of my business)라고 여길 교수는 없을 것이다. (泉)

실크로드 대장정중
진시황의 무덤기에서
발견된 병마용갑. (중국, 서안)

촬영 홍
West Coast School of Photography
PFA(Professional photography of America) 정회원
한국사진기협회 기획위원